

익산시, 노인층 위한 폭염대책 강구·현장행정

정현을 익산시장이 6일 이리경로당을 방문해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에 나서는 한편 노인층을 위한 폭염대책 강구책을 마련했다.

이번 폭염대책은 대응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폭염 비상상황실 운영, 취약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홍보 및 현장점검,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연기,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인 행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대응이 느린 노인층의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적극 실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축산농가 폭염 피해 대비 최소화 노력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사양(飼養)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체온 상승 방지를 위해 축사환경조절장치(환풍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등 여름철 사양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축사 천장이나 벽에 단열재 등으로 열막이 처리를 하고 폭염에 취약한 가축은 미리 수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문은철 농정과장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들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게 하고 조사료와 농후사료 비율을 적절하게 배합해 영양을 공급해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가축사양관리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폭염 예방 장비 등을 지원해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야외수영장,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

개장 이후 총 3만명 이상 이용객 방문 200평 이상 주차장 확보·주차 공간 협소 해소 빈 공간개텐트·그늘막 설치 허용 편의 제공

군산야외수영장이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도심 속 피서지로 큰 인기를 얻으며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폭염이 이어지고 가운데 군산의 대표적 도심 피서지인 야외수영장에서 많은 입장객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야외수영장은 지난달 5일 본격 개장 이후 총 3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방문했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말에는 2~3천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도심 속 여름 피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룡동에 위치한 야외수영장은 부지면적만 11.617㎡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에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과 워터슬라이드 2개소, 바닥분수 등이 설치돼 있다.

또한 올해에는 이국적 느낌의 6m 이상 대형 야자수 5그루를 설치해 야외수영장의 랜드마크 및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200평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총 400여대 이상이 주차가 가능해 주차 공간 협

소 문제도 해소했다. 이밖에도 이용객에 비해 부족한 그늘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 공간에 개텐트 및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야외수영장은 오는 8월 26일 운영되며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해 격주 월요일(8월 13일)은 휴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유아 2,000원이며, 20명 이상의 단체입장객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족과서를 즐길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격적 피서철을



최근 지속되는 폭염이 이어지고 가운데 군산의 대표적 도심 피서지인 야외수영장에서 많은 입장객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맞아 전국 각지에서 야외수영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청 펜싱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쾌거' 최강 입증

익산시청 펜싱선수단이 지난 5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배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사브르 개인전 남자 단체 에베에서 금메달 2개, 여자 단체 사브르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국내 실업팀 최강임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506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접전을 펼친 가운데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선수들 간 치열한 공방이 연출됐는데 김지연 선수는 1인자로서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공략하여 여자 사브르 개인전 준결승에서 송춘고등학교 전하영 선수를 15-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인천 중구청의 이라진 선수를 15-1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에베 단체전에 참가한 권영준, 송재호, 나종관, 양윤진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국제대학교를 45-3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서 울산광역시청을 45-38로 눌러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여자 단체 사브르는 준결승에서 동의대를 45:31로 이기고 결승전에서는 김지연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가뭄하며 은메달을 획득하여 익산시청 펜싱팀의 자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편 익산시 펜싱팀은 올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고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으며 국내대회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메달을 석권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잇따라

소방서 "작업자 주의 요망"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최근 팔봉동 소재 공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익산을 비롯한 도내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공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6일 밝혔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팔봉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중 불티가 유증기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3분만에 도착한 소방차량에 의해 불길은 5분만에 잡혀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에 모현동의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가 하면 인근 전주지역 한 목욕탕에서도 옮겨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용접작업 관계자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용접작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필수 화재예방교육을 시키고 작업전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규정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소방서는 지난 5월 대형공사장에 대해 현장방문 안전지도도를 실시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 참여**

임형택 익산시의원 등 160여명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총무로 활동 중인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가 지난 3일 서울 서소문청사에서 출범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오종석 서울시의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순관 위원장을 대신한 김순은 부위원장의 축사와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의 인사말로 시작해, 출범 선언문 낭독(이경선 서울시의원, 최충진 청주시의원에 이어, 국민들께 드리는 글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이 단체 발기인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후보 협약을 맺은 당선자 및 출마자 130여명과 지정연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자 및 시민 사회운동가 등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 그들 30여명 등 1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임형택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전국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지방의원들과 교류, 협력을 넓혀왔다.

임형택 의원은 2018년 3월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분권 선도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참여기관 모집

만들기 체험, 자연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유아 보육·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군산시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메일(bin930809@kca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어린이행복과(454-4173)로 문의하면 된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하반기 숲체험 놀이교실에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신청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

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은 어린이들이 숲을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6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자연과 교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